

# 아프리카 예술 결정체 쇼나조각 만나러 오세요



광주시 동구 '세계조각·장식박물관'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전시품을 둘러보고 있다. 박물관은 5월까  
지 '쇼나조각' 앙코르 전시를 연다. /최현배기자 choi@

## 광주 첫 개인 박물관 인증 받은 동구 '세계조각·장식박물관'

1월 개관 기념 '쇼나조각전'

5월까지 앙코르 연장 전시

희귀 소장품 1000여점 추가

엔티가구 기획전 등 계획



입구에 새롭게 배치한 한국 전통탈 조형물

쇼나(Shona)조각은 아프리카 중앙부에 위치한 작  
나라 짐바브웨 인구 70%를 차지하는 쇼나부족이 만든  
돌 조각이다. 19세기 미술가 파블로 피카소, 앙리 마티스  
등이 영감을 받을 정도로 현대 미술계에서 각광 받고 있  
다. 쇼나조각은 원석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스캐치  
나 밀그림 없이 오직 정과 망치, 샌드페이퍼로만 작업해  
자연의 조각으로 불린다. 사문석, 오팔 등 원석을 일일이  
손으로 깎아 쇼나부족의 애환과 꿈을 표현하고 있다.

광주에서 쇼나조각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.  
지난 1월 개관한 '세계조각·장식박물관'(관장 김상덕)  
이 개관전으로 진행했던 '조각전'을 5월까지 앙코르  
전시한다. 입구에서부터 전시장 내부까지 다양한 형태  
를 띤 쇼나조각 약 400여점을 전시 중이다.

박물관은 지난 9일 정식 등록을 마치고 체계적 운영  
계획을 세우고 있다. 광주에서 개인이 설립한 박물관으  
로는 첫번째다.

박물관에서 쇼나조각 시연을 선보였던 아프리카 짐  
바브웨 출신 존 타이(John Type·43) 조각가도 가을에  
다시 초청할 예정이다. 존 타이씨는 개관 때부터 약 3개  
월간 광주에서 머물다 지난달 귀국했다.

개관 때 약 5000여점이었던 소장품은 약 1000여점이  
더 늘었다.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김관장이 약 25년 전부  
터 외국 출장을 나갈 때마다 모은 기념품들이다. 박물관  
개관 이후 단순 장식품 보다는 전시에 어울리는 물건을  
구입하기 위해 더 신경쓰고 있다.

높이 1~2m 쇼나조각을 세워놓았던 입구에는 한국  
전통탈 조형물을 새롭게 배치했다. 지름 약 1m·높이 1.  
8m 통나무를 깎아 만들었다.

내부에 추가된 새로운 전시품 중에는 아프리카 에티  
오피아에서 구입한 상아 공예품이 눈에 띈다. 높이  
약 50cm 둘레 30cm 크기 상아향로는 우리나라 도깨비를  
담은 문양이 인상적이다. 상아 1개로 만들었다고는 믿기  
지 않을 만큼 군데군데 매달린 동그란 고리와 2~3mm  
간격으로 촘촘하게 새겨진 장식무늬가 특징이다.

맘모스 뼈로 만든 '증증일상'(높이 약 70cm·너비 50  
cm) 작품도 빼놓지 말고 봐야한다. 중국에서 구입한 작



품으로 약 2년에 걸쳐 우저우(蘇州) 정원을 새겨놓았  
다. 새하얀 작품 곳곳엔 학이 날아다니고 신선들이  
피리를 불며 노는 모습이 보인다. 쇼나무, 구름, 탑, 정  
자 등 무릉도원이 그려진다. 이 작품은 일단 맘모스뼈에  
서 한번, 정교한 제작 솜씨에 두번, 약 700~800만원을  
호가하는 가격에서 세번 놀라움을 준다. 또 티벳에서 가  
져온 200년이 넘는 종과 케이스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.

이외에도 기존에 전시됐던 나무 동물 인형, 수석(水  
石), 스탈린, 모짜르트, 아인슈타인, 베토벤 등 인물 모  
형을 만날 수 있다. 모형 한국 전통탈, 지름 1m의 대형  
지구본, 유럽 철갑옷, 선수상(船首像), 옛날 총, 방패 등  
은 위치를 옮겨 관람객들을 맞고 있다. 박물관은 재방문  
한 관람객들이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정기적으  
로 전시품을 교체할 방침이다.

박물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까지는 걸어서 10분,  
예술의거리라는 3분, 5·18민주화운동기록관과는 20여m  
떨어진 위치에 있다. 최근 '광주 프린지페스티벌', '나비  
야 공동가자'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 동구 불거  
리를 풍성하게 하고 있다.

쇼나조각 앙코르 전시가 끝나면 앞으로 유럽 엔틱 가  
구나 시계 등 전세계 장식이나 조각 트렌드를 광주에 소  
개하는 기획전도 매년 개최할 예정이다.

또 박물관 한편에 M갤러리(130m)를 마련해 1년에 4  
차례 청년·원로 작가 초대전을 열 계획이다. 갤러리는 정  
운태 명예관장(전 조선대 미술대학장)이 맡아 운영한다.

시범 운영이 끝나는 6월부터는 입장료(성인 3000원·  
청소년 2000원)를 받지만 대신 원하는 관람객들에게는  
원두커피를 무료로 제공한다. 문의 062-222-0072.

/김용희기자 kimyh@kwangju.co.kr

## 햇살 쏟아지는 고마운 집...문화진 개인전



‘쏟아지는 감사’ ▶

12~18일 무등갤러리

‘감사’를 주제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문희  
진 작가가 12~18일 무등갤러리에서 개인전  
‘집’을 연다.

문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자신이 거주하는 집  
안팎 소소한 풍경을 그린 수채화, 유화 등 작품  
40여점을 선보인다.

작가는 지난해 꽃을 주제로 첫번째 개인전을  
열었다. 고마움을 표현할 때 주는 꽃을 ‘감사’ 상  
징으로 꼽았다. 이번 전시 주제 ‘집’은 평소에는  
소중함을 몰랐던 주변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다.

특히 한껏 빛을 받고 있는 작품 속 소재들을 통  
해 햇살에 대한 감사 인사도 담았다.

‘속닥속닥’, ‘내가 갑니다’, ‘즐거운 산책’은 화  
순에 거주하면서 직접 그리고 있는 답을 그린 작  
품이다. ‘컨드리지마’에는 창가에 누워 게으름  
을 피우고 있는 고양이 등장한다. 또 ‘오후의  
티타임’, ‘공간’, ‘행복’은 집 안 풍경을 소재로  
삼았다.

문씨는 여수바다사생대회(2011)에서 대상을  
수상했으며 ‘She say. He say. 양성평등’  
(2015), ‘봄놀이’(2014) 등 단체전에 참여했다.  
문의 062-236-2520. /김용희기자 kimyh@

## ‘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께 바치는 노래’

전남문화관광재단 남도소리울림터 1주년 14일 김성녀 초청공연



‘배우 김성녀가 부르는 어머니의 노래.’

전남문화관광재단이 14일 오후 7시 남도소리  
울림터 개관1주년을 맞아 김성녀 ‘어머니의 노  
래’ 기획초청 공연을 선보인다. <사진>

‘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께 바치는 노래’를 주  
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는 배우 김성녀의 무대 인  
생을 다양한 노래와 함께 선보이는 1인 뮤지컬  
이다. 김 씨는 아코디언의 애잔한 선율에 맞춰  
‘목포는 향구다’, ‘목포의 눈물’, 고향초 등 총 17  
곡의 노래와 함께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와 다  
양한 작품에 얽힌 스토리를 들려준다.

연출은 백상예술대상 감독상 등 수많은 수상  
기록을 갖고 있는 남편인 손진책씨가 맡았다.

‘마당놀이의 여왕’으로 유명한 김성녀는 다섯  
살 때 연극배우로서 첫 데뷔 후, 국립창극단과  
국립극단에서 활동했으며 KBS ‘토지’, ‘서울뚝  
배기’ 등에 출연했다. 특히 윤문식·김종영씨 등  
과 함께 MBC ‘마당놀이’에 출연, 많은 사랑을  
받았으며 4년 전부터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을  
맡아 개성있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.

한편 지난 2015년 5월 30일 문을 연 남도소리  
울림터는 전남문화관광재단이 위탁운영하고  
있으며 매주 토요일 전남도립국악단 토요일  
공연이 열리고 있다. 전석 무료 공연으로 65세  
이상 동반 시 선착순 우선입장 가능하다. 문의  
061-981-0280. /김미은기자 mekim@

##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미분양아파트 할인분양

46형, 49형 20%할인 / 65형, 69형 30% 할인

- 최초분양가 7억9천만원 ~ 14억원  
(할인분양가 6억4천 ~ 9억8천만원)
- 전세가격 약 5억5천만원 ~ 8억원(전세가 상승중)
- 대출 없이 2년 전세 놓으면 분양가 회복 가능

## 근린상가 NPL 매각

- 분양가 336억원(1771평), 채권최고액 330억원
- 전채 임대시 보증금 20억 월 1억5천만원  
(현재 보증금 12억 차입 6300만원)
- NPL 할인매각가격 200억원

## 제척부지 NPL 매각

- 시세 및 채권최고액 270억원
- 하월곡 제1구역 시공사 선정(롯데, 한화컨소시엄)
- NPL 할인매각가격 120억원

에셋코리아 하월곡제일차 주식회사

상담 062)236-3400 · 010-2874-0999

www.솔향기맑은터.com

솔향기맑은터



솔향기맑은터

검색

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(풍림죽림길 86)

대표전화 (061)336-0770

솔향기정식 & 돼지갈비  
전문점 예약

www.솔향기맑은터.com

061)336-3939



- ▶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빠는날 화, 목, 토, 일
- ▶ 불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
- ▶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, 족구장, 12인승, 25인승 무료이용
- ▶ 멸균작용으로 SI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 
염가공급 1톤 30만원 (양돈, 양계, 한우, 하우스농가대상)

사전예약시 ▶ 12인승,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/ 컨퍼런스룸,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



-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, 16인실, 32인실, 56인실 구비
- 행복한 모임을 위한 돼지갈비전문점으로 바뀝니다.  
돼지갈비, 매콤갈비찜정식, 떡갈비정식, 솔향기정식
- ▶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% 할인
- ▶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